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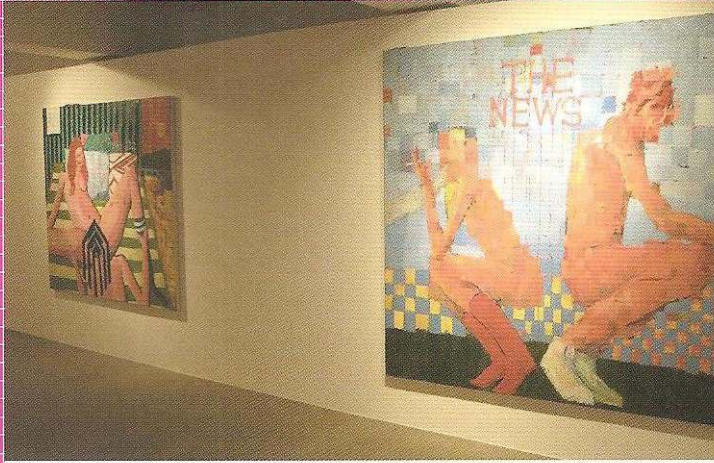
art와

art in culture free magazine 2008 9

Day to Day

Ryan Schneider ■ Emily Noelle Lambert ■ 27 Aug - 30 Sep 2008

III ART



Cover
 라이언 슈나이더
 〈Welcome the Fall〉 캔버스에 유채
 213.4×248.8cm(부분) 2006
 왼쪽 · 〈Day to Day〉전 전시 광경

일상 속 특별함을 찾아서

2007년 3월 개관한 IMART갤러리는 탐 플라이스하우어(Tom Fleischhauer), 헬게 라이베르그(Helge Leiberger), 엘리스카 바텍(Eliska Bartek), 헬렌 반 미네(Hellen van Meene) 등 국내에서 선보인 적 없는 유럽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면서 신생 갤러리로서의 입지를 다져 왔다. 국내 작가로는 민정연 박주영 김오안 이해승 등의 신선한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선보였고, 지속적으로 젊은 작가 발굴을 해오고 있다.

IMART가 이번에 선보일 작가들 또한 국내에서 소개된 적 없는 신선한 작가들이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 2인 라이언 슈나이더(Ryan Schneider)와 에밀리 노엘 램버트(Emily Noelle Lambert)의 작품 20여점을 〈Day to Day〉(8. 27~9. 30)으로 소개한다. 이 두 작가는 각자가 기억하고 경험한 시간과 공간을 개성있게 표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주관적인 경험과 이미지들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묘사하는 라이언 슈나이더와 경험의 기억과 잠재의식 속의 이야기를 한 화면에 동시에 이끌어내는 에밀리 노엘 램버트. 이 두 작가가 그려낸 일상의 순간을 관찰해 보며 그들의 표현 세계를 따라가 보자.

라이언 슈나이더는 우리가 잠자고 먹고, 누군가를 만나 살아가는 일상의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작업의 동기를 찾는다. 주변의 사물, 인물 그리고 환경은 그에게 있어 곧 삶이 된다. 작가는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모두 깊은 연관성이 존재함을 깨닫고 일상의 감정을 작품에 담았다. 현란한 색감의 물감을 두텁게 발라 칼로 긁어낸 후, 다시 그 위에 덧바르는 기법은 더 많은 손길과 시간을 요한다. 그러나 물감으로 생성된 질감과 색채의 조화는 매우 독창적이어서 관람자의 눈길을 끈다. 에밀리 노엘 램버트 또한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으로부터 작업의 영감을 찾는다. 그의 작품 안에는 그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다. 이것들은 서로 충돌하고 작가만의 엇갈린 세상을 만들어내며, 그 세상은 캔버스 안에서 실현된다. 작가는 합리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 꿈과 현실, 사실적 표현과 주관적 표현을 한 화면에 등장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양가적인 이미지들을 색채로 표현한다. 원색적이고 화려한 색채를 어두운 색과 적당하게 배열할 뿐만 아니라 형태와 선을 이용하여 밝은 느낌과 불안한 분위기를 동시에 보여준다.

라이언 슈나이더와 에밀리 노엘 램버트의 〈Day to Day〉전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그들의 삶의 모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이다. “나의 삶을 회화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동기인지 모른다”고 하는 라이언 슈나이더처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은 과연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 내일의 삶의 방향을 그려보는 귀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hibition

2008.9

The Bridge展
 감각의 지형展
 이기봉展
 B-Side展
 이영배展
 이용백展
 구분창展
 공간의 유희展
 이한정展
 움직이는 풍경展
 Day to Day展
 사과, 따라가자展
 마오쉬휘展
 메기테일러展
 팀 바빙턴展
 다초오 미야자마展
 Korean Young Artists 3展
 KDK展
 박은정展
 이영희展
 쿠웨밍展
 안토니오 세기展
 임상빈展
 Dionisio Gonzalez展

Fizgig 지금, 일어난展
 델픽게임展
 Young Artists from Ecatepec展
 잭슨홍展
 자연성과 신비성의 조화-어울림展
 Serendipities展
 강현선展
 박진영(Area Park)展
 TAKSO展
 정덕영展
 어제의 기억展
 정소영展

Day to Day展 IMART 8. 27~9. 30
 라이언 슈나이더 (Hide_Out)
 캔버스에 유채 243x213.4cm 2008



Day to Day展

8. 27~9. 30 IM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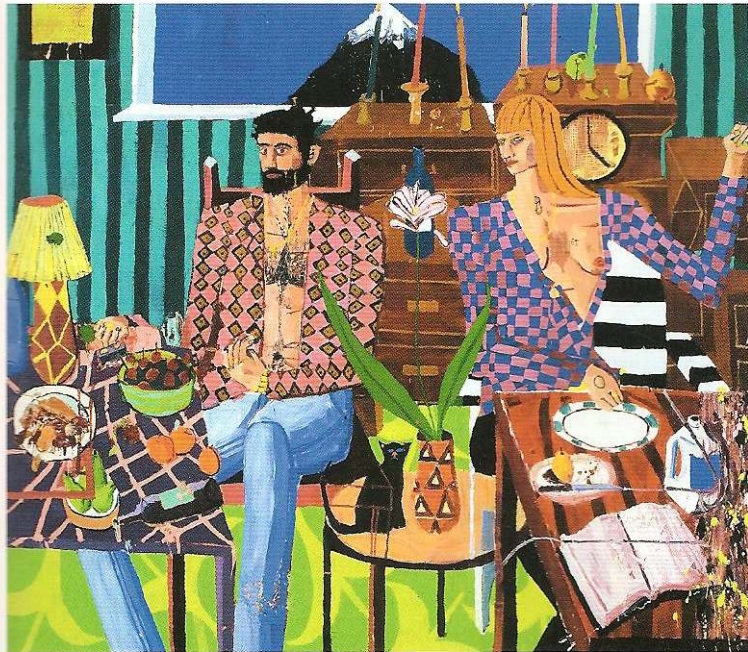
라이언 슈나이더와 에밀리 노엘 램버트는 현재 뉴욕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다. 이 두 작가는 각자가 기억하고 경험한 시간과 공간을 개성있게 표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라이언은 개인적인 사진들과 상상력을 이용하여 그의 삶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물 그리고 환경들을 자신만의 특별한 기억과 시각으로 기록한다. 에밀리 또한 개인적인 주변의 경험, 감정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작품들을 제작한다. 그의 작품은 원색적이고 화려한 컬러를 어두운 컬러와 적당하게 배열할 뿐만 아니라, 형태, 선을 이용하여 밝은 성향과 위기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그들의 삶의 모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이다. 02)3446-3766

사과, 따라가자展

9. 4~23 박여숙화랑

9명의 작가들로 구성된 <사과, 따라가자> 대한 여러 가지 단상을 보여준다. 그것의 총칭인 '음식'에 대한 생2방을 만들어 기획된 전시이다.

첫 번째 방은 음식이라는 존재는 방이다. 가공하는 과정에서 슬을 포착하였다. 두 번째 방은 인 표현했다. 달콤함이나 먹음직스 현하거나 혹은 그것을 절제하는. 지막 방은 음식물 변형을 통해 음를 내포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성을 혹은 생명과의 관계성에 대02)544-7393



위 · <Day to Day>전 전시작, 라이언 슈나이더 <Dumb Spirituals> 캔버스에 유채 213.4×243.8cm 2008
오른쪽 위 · <사과, 따라가자>전 전시작, 홍정표 <Actually-크리스피 크림 보너스> 디지털프린트 61×40cm 2007
아래 · 마오쉬취 <열린 녹색 가위> 캔버스에 유채 100×130cm 2008

왼쪽 페이지

위 · <공간의 유화>전 전시작, 신은경 <Photo Studio-Chair> 디지털프린트 79×100cm 2007
아래 · 이현정 <오브제 테이블> 혼합재료 1400×500×400cm 2008
오른쪽 · <음직이는 풍경>전 전시작, 이승현 <Masterpiece Virus> 한지에 인디언 잉크 214×150cm 2008